

## 退溪 詩世界の 한 局面\*\*

李 東 歡\*

퇴계는 평생 동안 詩作을 계속해 왔다. 그리하여 이천여 수라는 浩瀚한 양의 작품을 산출해 두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詩篇들에는 퇴계의 정신의 갖가지 曲折들이 간직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의 사상의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그의 시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인 일이다. 이 작은 試論은 그의 많은 작품 중의 극히 적은 일부를 사상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것이다.<sup>1)</sup>

현재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퇴계의 시는 그의 소년기의 작품 한 두 편을 제외하고는 그가 出仕하기 일년전인 삼십삼세에서부터 칠십세 卒年까지의 所作이다. 그런데 이 동안의 그의 시는 크게 보아 오십세 전후를 고비로 한 차례 현저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퇴계의 제자 鄭惟一은 『其詩, 初甚清麗, 既而翦去華靡, 一歸典實, 莊重簡淡』<sup>2)</sup>이라고 그의 詩風의 변화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의 이러한 시적 변화는 오십세 전후 그의 생애의 변환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이 확실하다. 즉 퇴계는 豊基郡守로 재임중 세 차례의 사직서를 올렸으나 聽許해 주지 않자 오십세 되는 해 正月에 監司의 허락도 없이 任所를 떠나 陶山으로 돌아왔다.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은 주로 仕宦에 종사하던 시기였고,

\*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25호(1980) 게재논문

1) 淡江大學의 王甦教授가 「退溪詩學」이란 論題로 退溪詩의 全般에 걸쳐 基礎的인 考察을하여 「退溪學報」第19輯에서부터 現在 第23輯까지 連載中에 있다.

2) 『退陶先生言行通錄』卷1 「言行通述」

그 이후는 조정으로부터 계속 벼슬이 주어져 벼슬살이를 아주 청산하지는 못했지만, 주로 도산에 은거하여 학문에 정진하던 시기였다.<sup>3)</sup> 그의 이러한 생활의 변환에 따라 시에도 변화가 온 것이다.

그의 시적 변화의 양상이 아직 정밀하게 고구되지는 못했지만 두드러진 한 가지 변화의 현상으로 出仕期에 지어진 시들에서 「仙界에의 飛翔」의 詩想이 빈번히 나오다가 은거기에 지어진 시들에 와서는 이것이 사라지고 대신 「달」과 「梅花」가 시재로 즐겨 쓰여지고 있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대체로 한 시인의 시에서 어떤 특정 범주의 詩想이나 詩材의 반복적인 출현은 그 시인의 내면세계의 깊은 곳에 관련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詩想과 詩材의 높은 빈도와 양자의 전후교체는 퇴계의 내면 깊은 곳의 어떤 동태의 반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리고 양자는 전후교체에도 불구하고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양자를 동일한 정신범주의 변형적 표현으로 보고 그 정신범주를 일단 「拘束으로부터의 脫却 - 自由에로의 志向」의 의식으로 정립해보고자 한다.

전자 「仙界에의 飛翔」의 詩想을 보여주는 작품 한 편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시의 중심부분만 인용한다)

海山仙人如可招	月裏姮娥相唯諾
彼美桂樹生蟾宮	宜與天地無終窮
婆娑本不礙月明	吳質妄欲鑿天功
我勸姮娥一杯酒	願乞玄霜玉杵白
凌風倏忽游八表	萬丈紅塵不回首

(「七月十三夜月」, 『退溪集』卷2)

이와 비슷한 유의 詩想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으로는 이 밖에 「湖堂梅花暮春始開」(『退溪集』卷1) 「士遂寄詩次韻」(同書, 卷1) 「題黃仲舉方丈山遊錄」(同書, 卷1) 「郡齋有懷小白之遊」(同書, 卷1) 「和陶集飲酒二十首

3) 李相殷著 『退溪의 生涯와 學問』 13-48面 參照

』(同書, 卷1) 「記夢」(『退溪集別集』卷1) 등을 들 수 있다. 퇴계가 仙界의 실재를 믿고 이에 대한 몽환적인 동경을 했을 리는 만무한 만큼 이러한 「仙界에의 飛翔」의 詩想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엄밀한 정신분석적 접근이 필요함직한 경우인데, 일단은 그의 내면의 한 갈등 - 「拘束으로부터의 脫却」의 고민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仙界는 시인이 표상하고자 한 「자유 공간」으로서만 의미가 있을 뿐 몽환적 仙化에의 욕구 따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퇴계로 하여금 갈등하게 한, 즉 퇴계에게 가해진 구속은 무엇인가? 그의 생애에서 조사될 수 있는 이 시기의 가장 큰 구속은 사환 생활 및 이에 따른 당시 정치현실과 자신과의 깊은 괴리다. 「仙界에의 飛翔」의 詩想이 나타나는 작품의 분포 기간은 정확하게는 그의 나이 사십사세에서부터 오십일세 사이인데 퇴계 자신의 서술에 의하면 사십삼세부터 오십이세 사이에 이미 『三退歸而三召還』<sup>4)</sup>했다고 했고, 제자 鄭惟一은 『先生本少宦情, 又見時事有大機, 自癸卯(四十三歲時)始決退休之志』<sup>5)</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시에서의 현상과 생애에서의 사실이 정확하게 대응되고 있어 양자 사이에 하나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실은 사십삼세 時 이전, 벼슬길에 들어선지 삼년만인 삼십육세 때에 이미 『三年京洛春, 局促駒在轅』(『退溪集』卷1 「感春」) 『強顏名利藪, 掩抑徒自失』(同書, 「歲季得鄉書書懷」)이라고 사환생활의 구속감과 환멸감을 시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리고 사십이세 때에 춘천 淸平山에 있는 고려 때의 은자 李資玄의 유적지를 지나며 그의 행적을 극구 稱揚, 歆羨해 마지 않는 詩와 文을 쓰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그는 李資玄의 행적을 『蟬蛻於濁穢之中, 鴻冥於萬物之表』<sup>6)</sup>라고 표현한 바 있다. 선계지향의 모티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여기에서 그 자신의 詩에 드러나 있는 「仙界에의 飛翔」의 詩想이 어디에 근원하고 있는가가 그 자신에 의해 시사된 셈이다. 요컨대 퇴계는 當前의 현실지평과 자아와

4) 『退溪先生文集』卷10, 「與曹樾仲書」

5) 註2와 같음.

6) 前揭書 卷1, 「過淸平山有感并序」

의 깊은 괴리를 하나의 견딜 수 없는 구속으로 의식하고 이 구속으로부터의 탈각의 염원으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仕宦期の 시에 나타난 의식의 한 국면이다.

이러한 구속으로부터의 탈각의 염원은 그의 도산 은퇴기에는 정신의 적극적인 자유에의 추구로 전화된다.

퇴계는 육십일세 때 도산서당을 落成하고 쓴 『陶山記』(『退溪集』卷3)에서 자신의 도산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묘사했다.

余恒苦積病纏繞，雖山居不能極意讀書。幽憂調息之餘，有時身體輕安，心神灑醒，俛仰宇宙，感慨係之，則撥書攜筇而出，臨軒翫塘，陟壇尋社，巡圃蒔藥，搜林攝芳，或坐石弄泉，登臺望雲，或磯上觀魚，舟中狎鷗，隨意所適，逍遙徜徉，觸目發興，遇景成趣，至興極而返。(中略) 夫山鳥嚶鳴，時物暢茂，風霜刻厲，雪月凝輝，四時之景不同，而趣亦無窮。自非大寒大暑，大風大雨，無時無日而不出。

도산 일대는 말하자면 그가 仙界로써 표상했던 동경의 「自由의 空間」 바로 그것의 구현이었다. 그러나 산림 속에서 逍遙徜徉하는 것만이 퇴계의 생활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는 여기에서 비로소 『收斂凝定』하여 『體認天理』하는 종교적인 구도생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그의 시에 「달」과 「梅花」의 시재가 즐겨 다루어진다.

月映寒潭玉宇清	幽人一室湛虛明
箇中自有眞消息	不是禪空與道異
	(「山居四時吟」, 『退溪集』卷4)

聞說陶仙我輩涼	待公歸去發天香
願公相對相思處	玉雪清真共善藏
	(「盆梅答」, 『退溪集』卷5)

이 밖에 「八月十五夜西軒對月」(『退溪集』卷2) 「天淵翫月」(同書, 卷3)

「七月既望」(同書, 卷3) 「居敬齋」(同書, 卷5) 「光影塘」(『退溪先生別集』卷1) 등과 『梅花詩帖』의 시들을 들 수 있다. 이렇듯 퇴계는 그 만년에 달과 매화로 즐겨 시를 읊었는데, 이것은 물론 측면으로 宋儒들의 도학 시의 자극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퇴계 자신의 정신의 경지에 직결된다. 이들 시는 물론 달과 매화의 미 자체에 탐닉한 단순한 서정시는 아니다. 그것은 「淸淨 또는 淸眞의 世界」의 표상이고, 이 淸淨 또는 淸眞의 세계는 다름아닌 「天理의 世界」다. 퇴계는 제자 奇大升에게 준 편지에서 「理」를 해명하는 가운데 『潔潔淨淨地』라는 형용어를 사용한 적이 있다. 즉 그는 『到得十分透徹洞見』하면 「理」는 『至虛而至實, 至無而至有, 動而不動, 靜而無靜, 潔潔淨淨地, 一毫添不得, 一毫減不得.』이라 하였다. 「天理의 世界」 그것은 完全圓滿한 절대의 세계다. 이 세계에 퇴계는 사변적으로 悟達할 뿐만 아니라 정감적인 합일에까지 이르려 했던 것이니 위의 시들은 바로 이런 心意의 표현인 것이다. 천리의 세계에 도달은 인간을 구속하는 또 다른 요소들, 흔히 「人欲」이라 일컬어져 온 온갖 個我的 속성의 제약으로부터 해방된 「精神의 絕對自由의 境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인 열락의 경지이기도 한 것이다. 퇴계가 말한 『不可傳之妙』<sup>7)</sup> 또는 『所樂於胸中而人不能與知者』<sup>8)</sup>는 바로 이런 경지를 가리켜 한 말이다. 이런 경지는 논리적인 산문문장으로는 표현하기란 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퇴계는 『莫笑文章爲小技, 胸中妙處狀來眞』<sup>9)</sup>이라하여 (여기서의 「文章」은 특히 詩를 가리킴) 만년의 자신의 내면세계를 묘출한 다음과 같은 시들을 남겼다.

雨捲雲歸暮天碧  
溪禽忘機立多時

西風入林鳴策策  
忽然決起飛無迹

(「溪上秋興」, 『退溪集』卷3)

7) 前掲書 卷3, 「陶山記」

8) 前掲書 卷10, 「與曹樾仲書」

9) 『退溪先生文集續集』續2, 「復用前韻」

비가 개이고 구름이 걷힌 파아란 하늘과 그 하늘로 날아 사라지는 白鷺의 이미지가 특히 돋보여 있는 이 시에서는 시인의 자아가 어떤 闕然하고 영원한 時空으로 혼연히 하나로 비상해 감이 암시되어 있다.

夕陽佳色動溪山	風定雲閒鳥自還
獨坐幽懷誰與語	巖阿寂寂水潺潺
	(「山居四時吟」, 『退溪集』卷4)

이 시에는 정신의 희열과 화평의 경지를 구상화한 것이리라.

浩蕩春風麗景華	葱瓏佳木滿山阿
一川綠水明心鏡	萬樹紅桃絢眼霞
造化豈容私物物	羣情自是競哇哇
山禽不識幽人意	款曲嚶鳴至日斜
	(「陶山暮春偶吟」, 『退溪集』卷5)

퇴계는 제자 鄭惟一에게 답하는 편지에서 『足下於學不已其功, 久久習成, 質變而仁熟, 庶幾得見人生一大歡喜事』<sup>10)</sup>라 이른 적이 있는데 특히 이 마지막 시(「陶山暮春偶吟」)는 바로 「歡喜」의 심경을 상징해낸 것이리라.

퇴계는 詩作에서 비유적인 수법에 구차스럽게 집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杜甫의 『盤渦鷺浴底心性, 獨樹花發自分明』句를 읊고서 『爲己君子, 無所爲而然者, 暗合於此意思』<sup>11)</sup>라고 해명하는 태도로 보나, 제자 南彦經이 부쳐온 시를 보고 『來詩古雅, 理趣俱到. 其得於遊觀所養者如此, 深可嘉尙』<sup>12)</sup>이라 하여 특히 『理趣俱到』를 중시한 태도로 보아 위에 예시한 시들이 결코 단순한 서경시가 아님은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위의 시들이 보여주는 바 의경은 퇴계의 만년 자아와 천리가 혼연히 하나로

10) 『自省錄』卷1, 「答鄭子中」

11) 『退陶先生言行通錄』卷3, 類編

12) 『退溪先生文集』卷14, 「答南時甫」

된 경지에서의 정신의 여러 가지 곡절들의 구현이다. 자아와 천리가 혼연히 하나로 된 경지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의 초월적 경역으로서 정신의 절대자유가 획득된 상태다. 즉, 천리와 하나로 된 자아에 의해서만이 존재하고 사유하며 행동할 뿐 자아를 간섭하는 어떠한 것도 자아 속에 용해해 버리는 「內面의 無碍한 自由의 世界」인 것이다. 莊子の 「逍遙游」에 보여진 바 동양의 고대적 자유 그것과 상통하는 일면이 있으면서 인간의 지상적 삶을 떠나지 않는 자리에서 그것을 소화해가면서 추구되는 정신의 자유란 점에 장자의 그것과는 다른 체질이 찾아진다.

이와 같이 퇴계는 정치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 도산이라는 일종의 道場에서 지고한 정신의 경지를 획득했다. 이런 점은 흔히 그를 潔身自愛만 하는 현실도피자로 인식하게 해왔다. 과연 그는 소승적 자기구제만을 지향했던가? 사실은 그는 도산을 중심으로 청진한 정신의 세계를 형성, 門弟子들에게의 전파를 통해 점진적이고 전면적으로 확충해감으로써 현실을 개선하여 이상사회를 구현해보려는 먼 안목 아래 현실에 참획하고 있었던 것이다.